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12-06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12-06
2020년 12월 06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222164971212](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164971212)

kr.theanarchistlibrary.org

2020년 12월 06일

차례

1. [이같은중대한시기에일부정치인·학생및근로자들의무책임한경거망동은이사회를혼란과무질서, 선동과파괴가난무하는무법지대로만들고있으며설상가상으로사회혼란의여파는수출부진과경기침체를심화시키면서노사분규와실업이증가함으로써사회불안을더욱가속시키고있어문자그대로우리국가는중대한위기에직면해있다하지않을수없다.]	3
2. [보호받아야할쪽은반대편이다]	4
3. [위대한결단?]	4
4. [노동조합은대변하는조직이아니다]	5

하여위임할수는있지만, 기본적으로이것역시조합원을' 대신하여' 노동조합이 싸운다는것과는많이다르다. 결국의사결정을하는주체, 의사결정후투쟁에돌입 하는주체는노동조합에가입한조합원, 노동자그모든개인이기때문이다.

때문에청년유니온이한국에서청년노동담론을주도하고있는이러한상황에 서, 청년유니온이보다명확한노동조합으로서의정체성을가지고행동할수있게 되기를진심으로바란다. 이미 10 년을이어오며많은조합원을확보한청년유니 온의영향력이결코한국사회에서적지않기때문에더욱그러하다. 때문에다시한 번, 청년유니온이노동조합으로서정체성을공고히하여주기를간절히바라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

1. [이같은중대한시기에일부정치인·학생및근로자들 의무책임한경거망동은이사회를혼란과무질서, 선동과 파괴가난무하는무법지대로만들고있으며설상가상으로 사회혼란의여파는수출부진과경기침체를심화시키 면서노사분규와실업이증가함으로써사회불안을더욱 가속시키고있어문자그대로우리국가는중대한위기에 직면해있다하지않을수없다.]

여의도에서모든집회가금지되고, 도로는봉쇄되고, 대중교통도막혔으며, 차량검문이실시되었다. 코로나-19 라는엄중한시기에, 감히헌법적기본권인집 회·시위의자유를행사하겠다는민주노총의폭도들을막아내기위한엄중한결단 이었다. 그리고이결과로경찰병력은수개의 1 인시위를성공적으로분쇄하고, 조 합원 1 명의신병을구금하는데성공했다. 참으로구국의결단이라하지않을수없 다.

코로나-19 의확산을경계한다면서, 왜“1 인”시위를막고, 왜 1 인시위를하 기위해당연히거리를두는대오를막기위해전혀거리두기를하지않은경찰병력스 크럼을짜고, 왜하필집회시위의제한기간이정기국회회기마지막날인 12 월 9 일인지는모르겠지만, 아무튼높으신분들이시키는대로하지않는불순분자를때 려잡는것이니구국의결단인것으로보인다.

이번단평의제목은 40 년전 1980 년 5 월 18 일, 비상계엄을전국으로확대 하면서전두환이최규하당시대통령의입을빌려한말을인용한것이다. 1980 년 에도대머리살인마가이끄는반란군의머리통을날려버렸으면, 굳이경거망동할 이유도, 사회혼란이나사회불안을걱정할이유도없었지않은가, 하는생각이드는 것처럼, 2020 년에도의회를날려버리거나노동권제약시도를날려버리면굳이 1 인시위안하는것아닌가, 하는생각이들지만, 어쨌든대중한국식구국의결단이라 고치자.

1980 년 5 월 18 일, 전두환이최규하에게제목과같은말을대독시킨이후, 광주에서는인민대중이이에맞서분연히일어나저항하고투쟁했다. 끝.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idxno=402212>

2. [보호받아야 할 쪽은 반대편이다]

프랑스에서 마크롱 정부의 '포괄적 보안법'에 대한 투쟁이 2 주째에 접어들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보안법의 24 조항은 경찰의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가할 목적으로 경찰의 얼굴이나 신원 확인 가능한 정보가 담긴 사진을 촬영하여 공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으로

징역 1 년에 벌금 4 만 5000 유로 (약 6000 만원) 까지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사실상 경찰의 폭력적 행동에 대한 고발을 제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의 민간인에 대한 폭력, 특히 인종차별적 폭력 사건이 빈번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방위를 위한 보도와 정보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뿐이다. 마크롱 정부는 경찰에 대한 폭력이나 보복을 부추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가해 측과 피해 측을 완전히 반대편에 배치하고 있다.

경찰의 보안법이 예고된 이후에도 시민과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휘두르며 시민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 11 월 23 일에는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에 난민 지원 단체가 오갈데 없는 아프가니스탄 이주민들을 위해 설치한 텐트를 경찰이 폭력적으로 철거하면서 기자까지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11 월 25 일에는 미셸 제클레르라는 흑인 가수를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4 명의 경찰이 20 분 동안 집단 구타하는 영상이 올라와 분노를 샀다.

폭력과 인종차별을 일삼는 경찰은 신원 보호를 하면서 흑인과 난민들이 겪는 고통에 선 눈을 돌리는가? 시위대의 마스크는 벗기고 자했으면서 경찰에 겐넷상에서의 마스크까지 씌워 주고 자하는 마크롱 정부와 그 법안을 규탄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

3. [위대한 결단?]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과오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참으로 '위대한 결단'이 아닐 수 없다. 탄핵이라던가, 대통령들의 구속 등에 대해서 대대적인 사과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았을 때, 확실히 나름대로 전향적으로 보이기는 하다. '정치인'들과 의회 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자들의 눈에는 말이다.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과할 시로 꼽고 있는 날이 12 월 9 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날임을 감안해보자면 더더욱 그렇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9 년 중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노동자 대중이다. 이 '노동자 대중'의 기준은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노동자라고

생각되는 노동자가 아닌 피착취 대중. 혹은 피 지배 계급을 일컫는, 무산 계급을 의미한다. 탄력 근로제의, 여러 경제 정책의, 그리고 노동 조합 파괴의, 검열과 탄압의 피해를 입었던 무산 계급은 그 어떤 계급 (어차피 남은 계급은 단 하나 뿐이지만) 보다는 많은 피해를 입은 계급이다. 그럼 김종인 씨는 대체 누구에게 사과를 하려고 하는가? 무엇에 대해서 사과를 하려고 하는가?

김종인 씨가 사과를 해야 할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노동자와 인민에 대한 검열, 탄압, 착취에 대한 것. 그리고 사과로만 끝날 문제도 아니다. 진정 그자가 과거 정권의 그러한 탄압, 착취에 반성을 느낀다고 하면, 자신 스스로 그 계단을 내려 오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노동자, 인민에게 힘을 돌려주는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여전히 부르주아들의 독재 체제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저러한 사과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당신은 '정치인'들에게 사과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사과를 한다고 했을 때, 당신의 사과는 '인민'이 아니라 인민들을 대변한 답시고 국회에서 거들먹거리고 있는 국회의원을, 그리고 어떻게든 그 국회에 나서겠다고 혁혁대는 정치인들을 향할 것이다. 당신과 '국민'이라는 관념의 힘이 되어 주겠다고 나서서 정치 집단의 말뿐 인사과, 허울 뿐인 정책들로 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집권 세력을 포함한 당신들이 완전히 사라지며, 노동자 인민의 직접적인 민주적 체제 확립만이 당신들이 그렇게나 울부짖는 '민주주의'를 향한 길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

4. [노동 조합은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다]

청년 유니온의 그간 행적에 대해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다. 청년 유니온은 한국 사회에서 세대별 담론의 선봉에서 시민 단체로서 중요한 성과를 많이 만들어 왔다. 하지만 노동 조합으로서의 청년 유니온에 대해서는 다소의 문의 여지가 있던 것이 금번이기 때문에 더욱 증폭되었다.

청년 유니온은 2020 년 12 월 5 일, 청년 유니온 10 주년 기념식에서 "(청년 유니온은) 청년이면 누구든 상관없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일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당신을 대변해서 우리 (청년 유니온) 가 나설 수 있다" 고 이채은 위원장을 통해 발언했다. 청년 유니온 2 기의 슬로건이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 질러라' 였다고 이야기 한 것과는 다소 다른 지향점을 밝히고 있는 지라 어느 쪽이 청년 유니온의 방향성인지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우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노동 조합이라는 조직은 누군가를 '대변' 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동 조합은 노동자 한 명 한 명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모여서 활동하는 단체다. 이 과정에서 단체 교섭권, 단체 협약 권 등의 의사 결정을 투표로 결정